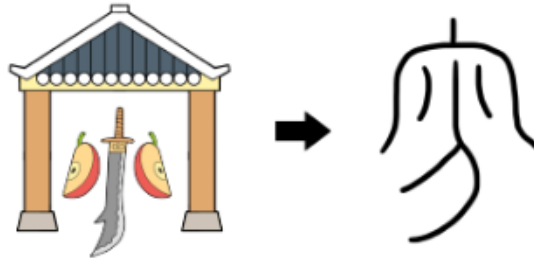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貧

가난할
빈

貧자는 '가난하다'나 '모자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貧자는 分(나눌 분)자와 貝(조개 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금문에 나온 貧자를 보면 宀(집 면)자 안에 分자만이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집안에 아무것도 나눌 것이 없다는 뜻이다. 금문에서는 집안에 쌀 한 톨조차 나눌 것이 없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었다. 이후 소전에서는 貝자와 分자가 결합한 형태로 바뀌면서 나누어주고 나니 아무것도 없다는 뜻의 貧자가 되었다.

𠂔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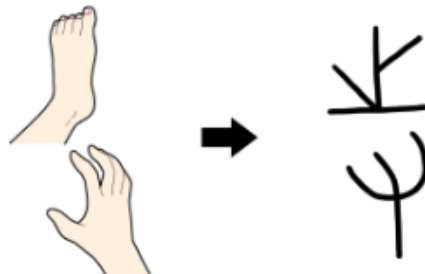
貧

소전

貧

해서

회의문자①



寺

절 사

寺자는 '절'이나 '사찰'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寺자는 土(흙 토)자와 寸(마디 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금문에 나온 寺자를 보면 止(발 지)자와 又(또 우)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손으로 발을 받드는 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받든다는 것은 높으신 분을 모신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寺자가 나랏일을 하던 '관청'을 뜻했었다. 하지만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이후에는 왕이 아닌 부처님을 모시는 장소를 뜻하게 되었다.

𠂔

금문

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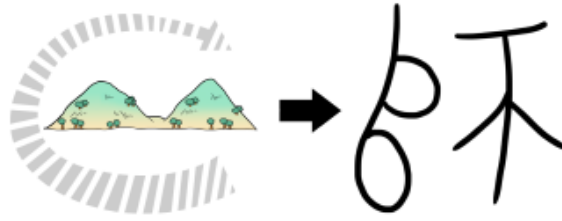
소전

寺

해서

4(2)
-
93

회의문자①



師

스승 사

師자는 '스승'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師자는 阜(언덕 부)자와 丌(두를 잡)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丌자는 '빙 두르다'라는 뜻을 표현한 모양자이다. 그러니 師자는 언덕을 빙 두른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師자는 본래 군대조직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로 고대에는 약 2,500명의 병력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러니 師자는 군인의 수가 언덕 하나를 빙 두를 정도의 규모라는 뜻이었다. 師자는 후에 '스승'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는데, 가르침을 얻기 위해 스승의 주변을 제자들이 빙 둘러 앉아있는 것에 비유했기 때문이다.

師

금문

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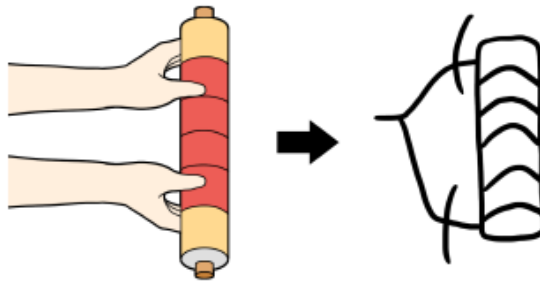
소전

師

해서

4(2)
-
94

상형문자①



謝

사례할
사:

謝자는 '사례하다'나 '양보하다', '사양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謝자는 言(말씀 언)자와 射(궁술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말씀과 궁술의 관계가 '사양하다'라는 뜻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갑골문에서는 단순히 양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는 𠂔 모습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물건을 건네주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글자가 크게 바뀌면서 지금은 謝자가 '사례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謝

갑골문

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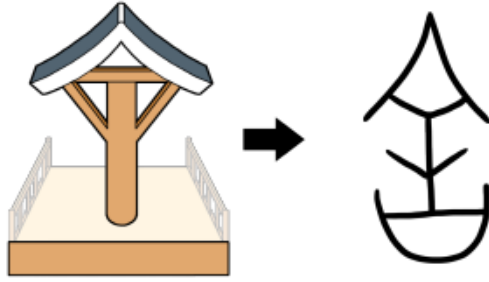
소전

謝

해서

4(2)
-
95

상형문자①



숨

집 사

숨자는 '집'이나 '가옥'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숨자는 숨(혀 설)자와 人(사람 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숨자는 숨자가 부수로 지정되어는 있지만 '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숨자의 금문을 보면 집을 받치는 토대 위에 기둥과 지붕이 얹어져 있었다. 이것은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간이 쉼터를 그린 것이다. 숨자에 아직도 '휴식하다'나 '여관'이라는 뜻이 남아 있는 것도 본래는 간이 쉼터를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은 일반적인 '집'이나 '가옥'을 뜻하고 있다.

숨

금문

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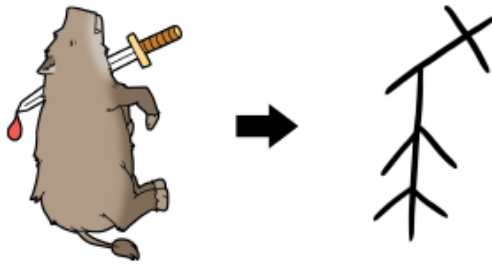
소전

숨

해서

4(2)
-
96

회의문자①



殺

죽일 살
|
감할/빠
를 새:

殺자는 '죽이다'나 '죽다', '없애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殺자는 杀(죽일 살)자와 豕(멧돼지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杀자는 짐승의 목에 칼이 꽂혀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죽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본래 '죽이다'라는 뜻은 杀자가 먼저 쓰였었다. 소전에서는 여기에 豕(멧돼지 수)자가 더해지면서 '죽이다'라는 뜻을 더욱 사실적으로 묘사하게 되었다.

殺

갑골문

殺

금문

殺

소전

殺

해서

4(2)
-
97

회의문자①



常

뜻뜻할
상

常자는 '항상'이나 '일정하다', '변함없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常자는 尙(오히려 상)자와 巾(수건 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常자는 본래는 '치마'를 뜻했던 글자였다. 그래서 常자는 집을 그린 尙자에 '천'이라는 뜻을 가진 巾자를 결합해 집에서 항시 두르고 있던 옷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집에서 항시 편하게 입는 옷이라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후에 '항상'이나 '변함없이'라는 뜻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은 尙자에 衣(옷 의)자가 더해진 裳(치마 상)자가 '치마'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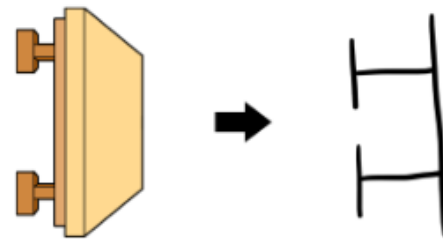
소전

常

해서

4(2)
-
98

회의문자①



床

상 상

床자는 '평상'이나 '마루'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床자는 广(집 엄)자와 木(나무 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본래 '평상'이라는 뜻은 牀(평상 상)자가 쓰였었고 床자는 속자(俗字)였다. 𦵑(나뭇조각 장)자는 생긴 모습이 마치 평상을 세워 𦵑그린 것과도 같아서 갑골문에서부터 '침대'나 '평상'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소전에서는 여기에 木자가 더해지면서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을 전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본래는 牀자가 '평상'이라는 뜻으로 쓰였었지만, 해서에서부터는 속자였던 床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

𦵑

갑골문

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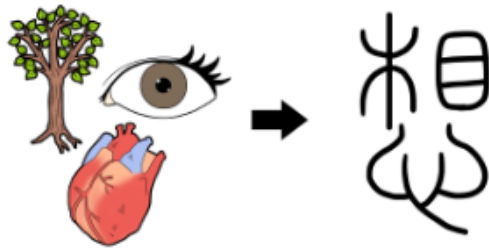
소전

床

해서

4(2)
-
99

회의문자 ①



想

생각 상:

想자는 '생각하다'나 '그리워하다', '상상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想자는 相(서로 상)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相자는 눈으로 나무를 바라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본래의 의미는 '자세히 보다'였다. 이렇게 자세히 바라보는 것을 뜻하는 相자에 心자가 결합한 想자는 자신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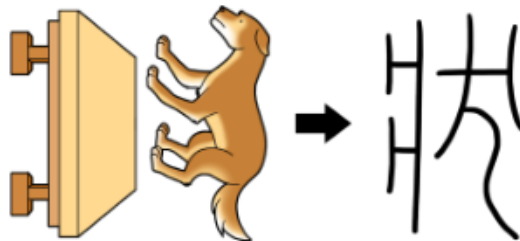
소전

想

해서

4(2)
-
100

회의문자 ①



狀

형상 상
| 문서
장:

狀자는 '문서'나 '형상'을 뜻하는 글자이다. 狀자는 甪(나뭇조각 장)자와 犬(개 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甪자는 '나뭇조각'이라는 뜻이 있지만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주로 '탁자'로 응용된다. 그러니 狀자는 마치 개가 탁자 위에 올라가 있는 듯한 모습이다. 狀자는 본래 의미도 '개의 형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히 '형상'이나 '모양'이라는 뜻으로 쓰이며, 이때는 '상'이라고 발음을 한다. 狀자는 후에 '문서'나 '편지'라는 뜻이 가차(假借)되었는데, 이때는 '장'이라고 발음을 한다. 그러므로 狀자는 뜻에 따라 발음이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狀

소전

狀

해서